

# 평협소식 2008 제16호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TEL 02 777 2013, 757 7851 FAX 02 778 7427

<http://www.clak.or.kr> e-mail: clak@catholic.or.kr

발행일 : 2008. 9. 6 발행인 : 한홍순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한국평협 회장단 새로 부임한 주한 교황대사와의 만남 가져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홍순, 담당 민병덕 신부) 회장단은 서울평협 회장단과 함께 지난 8월 4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새로 부임한 주한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



▲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라 대주교를 환영하며 각 교구평협 회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싣는 순서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한국평협 회원 단체〉
  - 한국가톨릭 간호사회
  - 한국가톨릭 의료협회
  - 한국가톨릭 여성협의회
  - 한국 지속적인 성체조배봉사자협의회
  - ◎ 동정 ◎ 교황님의 가르침

딜랴 대주교와 오찬을 갖고, 부임을 축하하는 상견례와 동시에 예순 세 번째 생일과 영명축일(8월 5일)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홍순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괄목할 만한 성장의 비결 중 하나는 한국교회가 교황님과 실제적이고 정서적인 친교를 맺고 있다는 데 있다”며, ‘하느님의 능력’이라는 뜻의 오스발도라는 이름처럼 “하느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교황대사로서 이런 친교를 한 층 더 성장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은 물론 아시아를 복음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리라 믿는다”며 환영과 축하의 뜻을 전했다.

파딜랴 대주교는 답사를 통해 “한국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어준 수많은 선조 평신도들이 남긴 유산인 한국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융성하게 발전해 나가는 힘은 바로 여러분 평신도의 힘”이라며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상대주의에 물든 이 세상의 최전선에 서있는 평신도가 복음의 가치를 세상에 두루 스며들게 해야 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4월 12일에 대한민국 주재 신임 교황대사로 임명된 파딜랴 대주교는 1942년 필리핀에서 태어나 1966년 필리핀 세부 대교구에서 사제 품을 받고, 1968년 교황청 외교관 학교 입학, 1972년부터 스리랑카, 아이티, 나이지리아, 아일랜드, 멕시코, 프랑스 교황대사관의 서기관과 참사관을 지냈으며, 1990년 피아 명의 대주교로 임명되면서 파나마 주재 교황대사, 1994년 스리랑카, 1998년 나이지리아, 2003년부터 코스타리카 주재 교황대사를 역임했다.

다음은 한홍순 회장의 축사와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의 답사 번역원고 전문이다.

존경하는 교황대사님,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를 대신 하여 우리 교회와 나라에 부임하신 대사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대사님처럼 노련한 외교관이자 착한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저희와 같은 아시아인을 이 땅의 주님의 포도원에 당신의 대리자로 보내 주심에 대해 우리 주님과 교황님께 충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대사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교황청 외교관으로서 교회를 위해 훌륭하게 봉사하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순교의 땅에서의 교황대사 임무 수행을 준비하신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모두 “한마음 한목소리로”(로마 15, 6)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마르 11, 9)라고 찬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또한 대사님께서 내일 맞으시는 생신과 본명 축일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생신을 축하 드립니다, 본명 축일을 축하 드립니다, 대사님!

생일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대사님의 부모님, 특히 대사님의 사랑하는 어머님을 위해 기도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대사님의 어머님께서는 열세 자녀 중 아들 둘을 교황 대사로 주님께 바치셨으니 참으로 여인들 가

운데에서 복된 분(루카 1, 42 참조)이십니다. 저희는 한국 교회의 괄목할 만한 성장의 비결 중 하나는 한국 교회가 교황님과 실제적이고 정서적인 친교를 맺고 있는데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 드립니다. 저희는 대사님께서 오스발도라는 대사님의 함자가 적절히 뜻하는 바와 같이 (오스발도는 하느님의 능력이라는 뜻), 하느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으신 교황대사로서 이러한 친교를 한층 더 성장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은 물론 아시아를 복음화하는 일에 크게 이바지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는 이미 지금부터 대사님께서 오스발도로서, 곧 하느님의 능력의 사람으로서, 그토록 크게 이바지하실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대사님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협력하고 기도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저희 한국의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은 저희 신앙 선조들의 위대한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분들을 본받아 교회와 세상에서 언제나 자신의 복음화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헌신하고자 합니다. 대사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청합니다.

존경하는 대사님, 다시 한번 저희 모두 기도 안에 한 마음 한 몸으로 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의 주님의 포도원에서 대사님께서 벌이실 활동에 대사님과 함께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사님,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합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원문: 영어)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해 주신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이신 한홍순 교수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분들 앞에서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  
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분들은 바로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의 회원이자, 평신도 지도자로서 교회의 사명과 활동에 깊숙이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의 정신은 그리스도와 한국 교회를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수많은 평신도 선조들이 남기신 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복음화에 있어서 하느님의 말씀이 평신도들의 마음과 가슴을 통하여 전해진 특별한 은총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복음화의 뿌리와 앞으로도 계속 융성하게 발전해 나가는 힘은 여러분과 같은 형제자매님들이 교회를 위해 바치신 헌신과 사랑이 큰 힘이 되어왔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 말씀의 도구입니다.

제가 젊은 신학생 시절에 비오 12세 교황께서 당시 평신도 사도직 단체인 가톨릭 액션 회원들에게 보내신 말씀 중에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아직도 잊지 못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최전선입니다.’

교황님께서는 공산주의에 대한 말씀 중에

평신도들이 교회의 최선의 방어선임을 언급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헌신적인 평신도들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및 상대주의에 물들어 세계화된 이 세상에서 교회의 최전선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가치가 이 세상에 두루 스며들게 하여야 합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께서는 한국 주교님들의 사도좌 정기 방문 시에 주교님들에게 교회는 성체안에서의 친교를 평신도들과 더 욱 깊고 넓게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교회의 삶과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즉 결혼과 가정의 증진이나 문화의 복음화는 바로 평신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허락 해주신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정신적으로 깊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부심이라기보다는 하느님께 드리는 저의 감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한국 초대교회가 존재했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존속된 것은 여러분의 선조들의 평신도 사도직 덕분이며 한국 교회가 희망적이고 낙관적으로 미래를 바라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의 인사와 교황 강복을 전합니다. (원문: 영어)

## 한국평협, 신자 국회의원들에게 생명윤리 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서한과 자료 발송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8월 14일 제18대 신자 국회의원 79명(한나라당 33명, 민주당 23명, 자유선진당 11명, 친박연대 2명, 민주노동당 2명, 창조한국당 2명, 무소속 6명)에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부당하게 개정됐음을 알리고, 재개정을 촉구하는 편지와 함께 생명윤리 관련 교회의 문헌을 발송했다.

한국평협은 이 편지를 통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교회의 가르침에 반하여 인간 생명인 배아를 파괴하는 연구를 허용하고, 난자채취에 대한 실비보상이라는 명목 아래 실제로는 난자매매를 부추기게 되는 생명 존중을 거스르는 법”이라며 “인간 배아는 생명을 지닌 인간 개체로 존중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생명윤리법이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약자를 강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희생시키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법제도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사태를 바로 잡아 우리나라에 생명문화를 창달하며 하느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을 믿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편지와 함께 발송한 문헌은 다음과 같다.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관하여/미국주교회의 성명서, ▲생명의 존엄성 회복을 위하여/제14회 생명의 날 담화문, ▲개악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며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성명서

## 한국평협 제2차 상임위원회 열어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7월 11일부터 1박 2일 동안 인천 가톨릭대학교에서 2008년 제2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각 교구와 단체들의 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교구장인 최기산 주교는 개막미사 강론을 통해 “우리 교회에서 현재 냉담자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문제의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면서 “조선시대부터 도량이었던 신학교 터에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2차 상임위원회의 모인 각 교구평협 임원들이 회의에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미래사목연구소 소장인 차동엽 신부가 ‘한국천주교회와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주제로 강의했다.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지역별로 본당사목협의회장 연수를 가져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홍순, 담당 민병덕 신부)는 지난 6월 28일부터 3

주간 매주 토요일 서울대교구 사목센터 2층 대교육관에서 본당사목협의회장 연수를 실시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본당사목협의회장 연수를 올해 처음으로 서서울지역, 중서울지역, 동서울지역의 순으로 지역별로 실시하여 높은 참석률을 보였고, 각 지역의 교구장 대리주교를 모시고, 살아있는 지역의 현안을 나누는 뜻있는 시간이었다.

연수는 각 지역 교구장 대리주교의 강의에 이어 교구 사목국장인 민병덕 신부의 ‘본당 제 규정(안)에 관한 해설 및 총회장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과 미사로 구성됐으며, 강의 후에는 지역별 현안을 토의하는 장도 마련됐다.

6월 28일 60여개 본당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첫 번째 서서울지역 연수에서 조규만 주교(서서울지역 교구장 대리)는 강의를 통해 “‘복음화 2020운동’ 구현을 위한 선교방안을 구상해 줄 것”을 총회장들에게 당부하며 소공동체의 활성화와 가정분과를 각 본당에 설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젊은 노인을 위한 활동의 장과 주일학교에 대한 투자, 사제성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각 본당에서 신자들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7월 5일 두 번째 중서울지역 연수에서 80여 명의 총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염수정 주교(중서울지역 교구장 대리)는 “본당 쇄신이 한국교회 쇄신의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본당 내 다양한 세대와 모임을 아우르는 친교영성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총회장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본당 인력을 잘 활용하여 사제와 평신도 사이를 조화시키는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어 “당고개와 새남터 등 한국교회 최대 순교성지가 있는 중서울지역의 신자로서,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를 뿌리내리도록 애쓴 선조 평신도들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동서울지역 본당 총회장 연수 장면

60여명의 총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7월 12일 마지막으로 가진 동서울지역 연수에서 김운회 주교(동서울지역 교구장대리)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도구로 써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느님 말씀을 항상 생활화하며 그 말씀 안에서 움직이며 행동하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자”며 각 본당에서 애쓰는 총회장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 선교포럼 ‘행복한 선교 리더십’ 5차례 성황리 마쳐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본당 선교분과장과 위원, 선교단체 등 선교 일선에서 활동하는 신자들을 위해 마련한 선교포럼 ‘행복한 선교 리더십’이 지난 3월부터 매월 1회씩 1회에 걸친 교육을 마치고 지난 7월 19일 마감했다.

매 회 약 200명의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재양성 전문가인 조

은상 박사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조 박사는 “자신이 행복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 다른 이에게 행복을 전하는 선교를 해야 한다”며 ‘믿음의 길’, ‘희망의 길’, ‘사랑의 길’ 즉 신망에 복음3덕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전했다. 또 이를 생활화할 수 있는 연습을 통해 선교 리더십을 개발하고, 지역의 상황에 비추어 구체적인 선교전략을 찾아내는 비전을 제시했다.

서울평협은 올 하반기에 두 차례 선교포럼을 더 실시할 예정이다.

## 〈단체소식〉

### 서울대교구 가톨릭경제인회 제2회 정기세미나 개최

서울대교구 가톨릭경제인회(회장 최철수)는 지난 7월 18일(금)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차 정기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경제 상황을 회원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긴급히 준비한 특강이었다.

“한국경제 이대로 추락할 것인가?”라는 부제를 달아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거시경제분야의 전문가인 권순우 박사(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연구실장)가 강의를 맡았다. 평화신문 기사를 통해 사전에 강의 내용을 홍보하고 비회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 결과, 100명이 넘는 회원과 20여명의 외부인사가 참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인들의 뜨거운 관

심사안을 선정하여 꼭 원하는 시점에 함께 생각하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가톨릭경제인회의 정기 행사를 외부에 개방한 첫 시도는 경제인회를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관심을 가지고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 서울대교구 염수정 총대리 주교가 참석하여 격려사를 해주었고 회원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국내외 경제 불안 이슈의 진단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권 박사는 금융, 경기, 물가, 환율 4대 쟁점 부문으로 나누어 경제 상황 악화의 원인과 전망을 분석하였다. 자칫 모호한 내용이 되기 쉬운 주제를 명쾌하게 정리했다는 것이 많은 참가자들의 의견이었으며 사업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강연에 앞서 가톨릭경제인회 최철수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더욱 알차고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특강을 늘리겠다고 약속하였고, 준비를 책임진 곽만순(마르꼬 가톨릭대 교수) 기획분과장도 세미나의 주제를 신앙, 문화, 건강 등으로 다양화하여 적시에 개최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인회는 10월 13일 춘천 라데나CC에서 사제들을 모시고 보은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 행사는 사목일선에서 애쓰신 서품 20년 이상 되신 신부님들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마련하는 자리이다. 또한 전 회원과 가족이 참여하여 한 해를 돌아보고 묵상하는 ‘퇴정’을 10월 18일부터 1박 2일로 파주 출판 단지 내 지지향 호텔에서 가질 계획이다.

## 서울대교구 가톨릭여성연합회 8월 월례회

서울대교구 가톨릭여성연합회는 8월 26일 (화) 명동성당 소성당에서 월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정태영 신부(선교전례사목부) 주례로 세계가톨릭여성연합회 아태 지역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미사를 봉헌하고 안명옥(17대 전 국회의원, 현 포천중문의과대학 보건복지대학원) 교수의 “생명의 존엄과 여성”에 관한 특강을 실시하였다.

안명옥 교수는 특강을 통해 천주교의 시작은 나눔공동체임을 강조하며 생명 나눔, 행복 나눔, 사랑 나눔, 꿈 나눔에 대한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아울러 1.신체적인 건강 2.정신적인 건강 3.사회적 건강 4.경제적 건강 5.지적인 건강 6.영혼의 건강 7.문화적인 건강 등 7가지 무지개빛 건강운동을 피력하였다.

##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2008 ‘바오로 해’ 하반기 본당총회장 연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로마 1, 16)

바오로 탄생 2000주년을 맞으며, 교구장과의 대화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2008 하반기 본당총회장 연수’가 수원교구 평협(회장 정태경, 영성지도 문희종 신부) 주최로 7월 5일부터 6일까지 아론의 집에서 열렸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로마 1, 16)를 주제로 한 이번 연수에서는 첫날 ‘바오로의 영성’에 대한 문희종 복음화국장 신부의 강의를 듣고 그 내용을 토대로 ‘바오로 해

를 맞아, 선교율이 떨어지는 이유와 개선책’에 대한 대리구별 분임토의를 가졌다.

둘째 날에는 ‘가톨릭패밀리아카데미’ 박문수 원장의 ‘교구 복음화 현황 진단과 대책’에 대한 강의를 들은 후 대리구별로 분임토의의 내용을 보고하고 질의한 뒤, 교구장의 답변과 강의를 듣는 일정을 통해 교구 내의 현안들을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에 참가한 본당총회장들은 빽빽한 일정



▲ 분임토의 결과를 듣고 있는 수원교구장 최덕기 주교와 평신도 모두가 비전을 공유해야 하고, 비전 실현을 위해 일치단결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덕기 바오로 교구장은 일 년에 두 차례 1월과 7월의 정기적인 본당총회장 연수를 통해 본당총회장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질의응답과 강의, 강론을 통해 총회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구장의 사목방향과 비전을 전달하고 있다.



▲ 본당 총회장 연수회에서 문희종 복음화국장 신부가 강의하고 있다.

속에서도 교구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에 따라 소공동체의 견인차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진지한 모습으로 강의를 경청하고 토론에 참여했다. 특히 일회성의 선교운동을 지양하고, 조직적이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선교운동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스스로의 복음화와 생활의 복음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교구장은 젊은 교구로서 수원교구의 과제인 ‘교구장 5대 중심사목 실현’과 ‘사제와 평신도 양성’, ‘한국 사회와 세계 교회에 대한 응답’ 등의 사목비전을 피력하며, 이를 공유하고 함께 구현해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교구 공동체의 성공적인 과업 달성을 위해 사제

## 대리구평협 명예기자 2차 간담회

대리구평협 명예기자 간담회가 6월 28일(토) 오후 12시에 교구청 평협 사무실에서 열렸다.

수원교구 평협 소식지의 대리구란 원고를 담당할 명예기자단은 지난 5월 3일 1차 간담회를 갖고 명예기자의 역할과 업무, 소식지 대리구란 편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등 업무전반에 관한 내용을 전달받고 업무수행과 일정 등을 토의했다. 또한 2차 간담회에서는 원고작성 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점 등을 보고하고, 편집회의를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영성지도신부인 문희종 요한세례자 복음화국장신부는 명예기자단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표명하며, 대리구평협 홍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리구평협 회장의 추천으로 선발된 대리구 평협 명예기자단의 명단은 지난 6월호에 공지되었으며 ‘수원평협소식’ 6월호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2008 본당 평협회장 · 교구활동 단체장 연석회의



▲ 바오로 영성과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정업택, 담당 최광조 신부)에서는 8월 23일 가톨릭 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청주교구내 본당 평협회장과 교구 활동단체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시노드 폐막과 교구설정 50주년을 맞이하여 실시된 매兜성모상 순례기도가 전교구민의 적극적인 호응과 기도 속에 뜻 깊은 행사로 마무리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교구 100주년을 바라보며 평신도 사도직의 활발한 활동으로 교구장의 사목과 비전 2050의 실현을 위한 결의를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정업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평신도 지도자인 평협임원과 단체장들은 봉사자로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교구의 발전과 최양업신부님의 시복시성을 위하여 더욱 매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구에서 실시하는 행사와 업무 계획에 대한 안내와 2009년도 각 활동단체 활동 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다. 특히 2008년 평신도 도보성지 순례 및 찬미 예수의 날에 평신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담당사제인 최광조 신부가 교구 200주년을 지향하는 청주교구의 비전과 교구장의 사목방침 구현을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나로 일치된 교구공동체를 위하여 활동하는 평협이 될 것을 당부한다는 말씀과 강복으로 회의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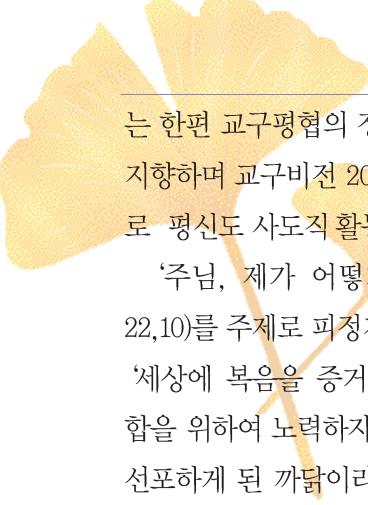
### 평협임원 피정,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서는 지난 8월 9일에 배티성지 내의 최양업영성관에서 교구평협임원 1일 피정을 실시하였다.

시노드와 2008년 교구설정 50주년을 감사하



▲ 피정 후 참가한 임원들이 담당사제와 함께 기념촬영하였다.



는 한편 교구평협의 정체성과 교구 100주년을 지향하며 교구비전 2050의 실현방안을 중심으로 평신도 사도직 활동에 대하여 묵상하였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사도 22,10)를 주제로 피정지도를 한 최광조 신부는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의 일치와 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자’는 것이 바로 성년을 선포하게 된 까닭이라고 하였다. 그런만큼 우리 교회는 “모교회 사도와의 일치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한 바오로의 사도직을 본받아 오늘의 세상에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바오로 사도의 생애와 영성에 대하여 강의하였는데,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온전히 하느님의 은총에 의한 구원이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평협임원으로 봉사하게 된 것도 하느님의 은총에 의한 것인 만큼 임원 모두는 주님을 삶의 중심 모시고, 언제나 그분의 뜻에 충실한 오늘의 사도가 될 것”을 당부하였다.

오후에는 참가한 임원들이 3조로 나뉘어 조별 토론을 하고 이어서 전체토의를 하였다. 토론 결과 평협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바오로 사도의 영성을 따라 교구비전 2050과 교구 100주년을 지향하는 교구장의 사목교서의 구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일하는 교구평협이 되자고 결의하였다.

또한, 정업택 회장의 ‘봉사자의 자세와 임무’라는 주제발표를 듣고, 임원들은 발씩김의식을 통해 봉사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바오로 사도의 영성을 따라 임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담당사제인 최광조 신부의 주례

로 거행된 파견미사로 일정을 마쳤다.

##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2차 평협회의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강신근, 담당 유영봉 몬시뇰)는 ‘제2차 교구평협회의’를 지난 7월4일(금) 교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산교구 평협에서 실천하고 있는 ‘평신도 운동(평신도의 소명, 비전1030)’을 완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과 비전을 실천하기로 의결하였다.

가장 시급한 교구 ‘평신도 운동’을 위해 교구평신도사도직협의회의 ‘예산과 재정을 배가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또 ‘제2차 교구평신도대회(2008년 11월8일)’를 성대하게 개최하여 평신도의 소명의식을 강화하고, 11월16일 평신도주일(평신도의 날)을 통하여 평신도가 교회의 중심에서 주인의식을 갖도록 다시 한 번 묵상함으로써 ‘평신도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뜻을 모았다.

특별히 예산재정분과위원회(위원장 혀순기 바오로)는 교구평협의 예산과 재정배분운동을 위한 연구와 대책을 발표, 평신도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는 실천운동으로 전개하기를 촉구하였으며 모든 위원들이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 마산평협 영성특강

마산교구 평협은 교구의 16만 평신도가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을 올바로 깨닫고 스스로

평신도의 시대를 열고 참여하는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교구 평협 영성특강’을 지구별로 개최하였다.

지난 7월 11일(진주지구 옥봉성당), 8월 25일



▲ 영성특강을 듣기 위해 성당을 가득 메운 신자들

(창원지구 반송성당), 8월 26일(통영지구, 태평성당)에서 노길명 교수(고려대 사회학과)를 초청하여 ‘안중근(토마) 의사의 신앙과 평신도 활동’을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

우리 교회의 잘못된 판단으로 안중근(토마) 의사의 위대한 신앙과 삶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단순히 가톨릭신자가 살인을 했다는 단적인 사건만을 기억하고 있었으나, 그의 열정적인 신앙과 복음화를 위한 삶은 무관심과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평신도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는 배움의 장이었다. 마산교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는 안중근 의사의 삶을 통하여 모든 교구민들이 평신도의 소명을 올바로 깨닫고 다함께 참여하는 주인의식이 강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한다.

### 제3차 교구 평협 상임위원회

마산교구 평협은 제3차 교구 평협 상임위원회의를 8월 8일(금) 교구청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교구평협 상임위원회는 제2차 교구평협 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회의로, 이날 회의에서는 2008년 하반기의 중요 사업과 평신도운동을 위한 소명의식과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특별회년’으로 선포하신 ‘바오로사도의 해’를 맞아 오는 10월 18일(토) 마산MBC홀에서 공연하는 ‘교구바오로문화제’를 교구평협에서 준비와 진행과 후원을 하기로 하였다. 또 이 행사를 평신도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 삼아 그 대책을 연구하고 다함께 참여하는 운동으로 전개하기로 의결하였다. ‘바오로문화제’는 바오로사도의 신앙과 삶을 연극으로 공연하는 ‘연극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의 장르를 통하여 바오로 사도의 영성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2009년 6월 29일에 개최되는 ‘바오로사도의 해’ 폐막식 신앙대회를 교구평협에서 주관하기로 하였으며 제2차 평신도대회의 성공적 개최, 예산재정 배가운동의 완성, 비전1030 복음화운동 등 ‘평신도운동’의 성공을 위하여 교구 내 본당회장과 교구단체장이 일치 화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2008년 하계연수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대환, 담당 남정홍 신부)는 지난 7월 12일~13일 1박

2일로 교구 내 각 본당 사목임원 및 제단체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 독립 운동 기념관에서 안동교구 평협하계연수를 개최하였다.

첫날 오후 3시에 접수가 시작되었고 첫 강의로 바오로의 해를 맞아 농은수련원장 이준건 막시밀리아노 콜베 신부의 ‘바오로 영성’에

##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주평협 송상순 회장, 제주교구 재해구호 봉사단 연합회 임원에 임명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송상순 회장, 부회장 김경환, 이성향, 총무 김대은씨가 최근 발족한 제주교구 재해구호 봉사단 연합회 임원으로 임명받았다.

모든 본당 재해구호 봉사단이 연합하여 재해재난이 발생한 제주교구의 각 본당과 그 지역 주민들에게 물적·인적 지원을 통한 구호활동을 함으로써 교회의 봉사정신을 실천하는데 목적을 둔 ‘제주교구 재해구호 봉사단 연합회 창립총회’는 7월 20일 가톨릭회관 2층 강당에서 열렸다. 제주평협 주최로 개최된 이날 총회에서는 ‘제주교구 재해봉사단 연합회 교육자료’를 모든 참석자에게 배포하였으며 ▲ 재해재난 발생시 해당 지역의 재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즉각적인 구호활동을 실시하고 ▲ 교구의 모든 본당 봉사단이 연합하고 일치 협력하여 재해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자들과 지역주민에게 사랑을 나누어 봉사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 연합회가 하는 모든 일이 재해재난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봉사하겠다는 결의문을 낭독하였다.

재해봉사단 연합회는 지난해 9월 16일 제11호 태풍 ‘나리’가 제주도 전 지역을 초토화 시켰을 때 피해지역을 둘러 본 교구장 강우일 주교의 구상으로 평협이 추진해왔다. 제11호 태풍 ‘나리’로 제주교구는 6개 본당에서 5530만원, 신자가정 300세대에서 42억 7400만원 등 총



▲ 하계연수를 마치고 독립기념관 앞에서 권혁주 주교님과 함께 기념 촬영

대한 특강이 있었다. 이어 남정홍 신부의 주례로 미사를 봉헌하고, 남정홍 신부의 ‘신앙인의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저녁 식사와 함께 마련된 친목의 시간은 각 본당의 근황과 서로의 관심사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둘째날 독립운동기념관 전시실 관람을 하며 안동지역에서 일어난 여러 의병과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을 듣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어 하계연수에 참가한 사목임원 소개와 전반기 평협 행사 평가가 있었고, 앞으로 있을 교구장배 어르신 게이트볼 행사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어 교구장 권혁주 주교의 주례로 파견미사를 봉헌하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43억 2930만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제주도 전체 피해액 1200억 원의 3.6%에 달하는 수치이다.

생활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며 종교를 가진 간호대 학생으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 한국평협 회원 단체 소식

### 한국가톨릭 간호사협회

#### 전국의 가톨릭 간호대학생 피정

한국가톨릭 간호사협회(회장 김남초)는 지난 7월 4일에서 5일까지 1박 2일간 성 베네딕토 피정의 집에서 “딸아 용기를 내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마태 9,22)”를 주제로 전국 간호대학생 피정을 개최하였다.

이날 강의에서 이은주 마리헬렌 수녀는 “삶 안에 깊은 에너지가 있다. 내 힘으로만이 아닌 정성과 마음을 다하고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능력에 맡겨드리면서 성경을 늘 읽는 자세가 필요하다. 내 힘만으로 간호하려하면 다칠 수가 있다. 간호사는 삶 안에 나를 사로잡는 그 분의 말씀을 간직해야 한다”고 강의했다.

피정에 참가한 학생들은 잠시 멀어졌던 신앙



▲ 전국에서 모인 가톨릭간호대학생 피정 기념촬영

### 한국가톨릭 의료협회

####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 중인 앵흐토야

한국가톨릭의료협회(회장 최영식)의 해외의료선교단(김영훈 단장, 최환석 부단장, 박영혜 수녀 협회 사무국장)의 현지 답사팀은 지난 4월 몽골 문화과학부로부터 고관절 탈구로 장애가 된 앵흐토야(여, 3세)의 치료를 의뢰받았다.

치료는 회원병원인 의정부성모병원 정형외과 김석중 교수가 맡았다. 앵흐토야는 5월 6일 한국에 도착하여 외래 진료 후 당일 입원하였다. 15일 선천성 우측 고관절 탈구에 대한 관절적 정복 및 절골술, 금속내고정술을 시행하였고 27일, 22일간의 병실생활을 끝내고 퇴원



▲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 앵흐토야와 의료진

하였다.

퇴원 후 병원 부근에 방을 얻어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정형외과 외래 진료를 받고 있고 7월 2일부터는 재활의학과 외래에서 약 4주간

의 일정으로 물리치료를 하였고, 7월 16일 정형외과 외래 진료시 석고를 제거하였다. 이후 한 달 간의 물리치료가 추가로 필요하여 물리치료 후 봉골로 돌아갈 예정이며 향후 약 1년 후 고정된 금속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술할 계획이다. 비자가 8월 2일로 만료되어 천주교의 정부이주노동자상담소의 도움으로 비자연기를 신청하였다.

의정부성모병원에서는 입원진료비 11,552,023원 전액을 지원하였고 외래진료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6월 25일과 7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성모자선회 기금 100만원을 물리치료 받는 기간 동안의 생활비로 지원하였다.

## 해외 및 북한 의료 선교사업 대북 TFT 회의 개최

해외 및 북한 의료선교사업 대북의료지원 TFT 회의가 2008년 7월 7일 오후 2시부터 가톨릭중앙의료원 의과학연구원 1026호에서 열렸다. 최영식 회장 신부를 비롯한 정수교팀장(가톨릭의료협회 사무총장) 외 팀원 7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대북의료지원 사업의



▲ 해외 및 북한 의료선교를 위한 TFT 회의 장면

전반적 진행 방향과 다른 대북 지원 단체들과

의 협동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대북의료지원 TFT의 자문위원으로 북한 경제 전문가인 임강택 박사(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를 선임하였다.

## 글로벌시대 한국가톨릭의료협회, 미국가톨릭의료협회와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서 체결



▲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가톨릭의료협회(회장 최영식 신부)는 지난 5월 20일 미국가톨릭의료협회(The Catholic Health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 CHA)와 한국가톨릭의료협회(The Catholic Health Association of Korea, CHAK)와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가톨릭계 의료기관은 ‘사랑과 봉사의 전인 치유’ 와 ‘세계적인 첨단의료’를 통한 이상적 의료 실현을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이러한 목적의 실현과 가톨릭의료기관의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교직원들에게 가톨릭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하고, 의료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기술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인력을 교류하고, 공동연구 및 사업 연계시스템의 구축 등 타 기관과 여러 가지 경험을 공유할 다양한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

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CHA는 미국전역의 690개 대형병원을 회원으로 하며, 미국 전체 의료의 15%를 담당하고 있는 ‘가톨릭의료협의체’다. 책임자인 Carroll Keehan(CEO, President) 수녀는 CHAK와의 공동 사명에 대한 강한 연대감을 표명하고, 대구가톨릭대의료원에 무상 회원자격을 수여했다. 양측은 MOU체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자 한다.

가톨릭의료인의 미션을 위한 공동 사업은 전인치유를 위한 교육 및 인적교류, 호스피스, 영적치유, 임상사목 등 각종 프로그램의 공유, 국제의료봉사 및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 성체줄기세포(Adult Stem Cell) 공동 연구로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의료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병원 경영과 의료발전을 위해 전문 인력의 교류와 교육, Medical device의 공동 개발과 공동 판매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한편 CHA 회원 병원인 Georgetown University Medical Center와 협약으로 의료윤리 연구 및 성체줄기세포 공동 연구(Kevin FitzGerald 신부), 의사/기초의학교수/기타 의료인의 인적교류 및 교육, 의료고안품 공동개발과 CHA를 통한 보급, 가톨릭 Mission 공동 수행, 의대생 교육(Stephen Ray Michell 의대학장), 개별화된(personalized patient care) 한국형 암 환자 치료법 개발, 재생의학 공동개발(Louis M. Weiner 암센터 소장) 등을 수행하고 있다.

## 한국가톨릭여성협의회

### 이사회 개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회 개최 준비

한국가톨릭여성협의회(회장 권경수)는 지난 8월 27일(수) 명동 가톨릭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오는 10월 26일(일)부터 10월 31일(금)까지 5박 6일간 서울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되는 세계가톨릭여성연합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총 66개국의 세계가톨릭여성연합회 회원국 가운데 아태 지역 12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회는 “평화를 일구는 여성-신앙과 행동 안에 일치하며”라는 대주제 아래 강우일 주교(제주교구장)의 “여성의 존엄과 평화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 생명수호 ▲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 아시아지역 이주민 현황 등에 관한 강연과 그룹토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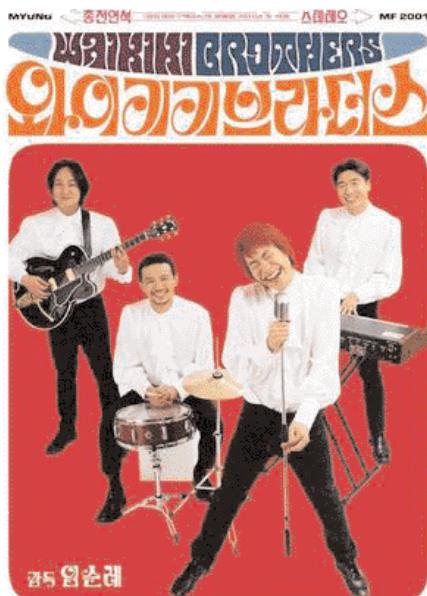
특히 본 대회에서는 세계인구의 밀집지역이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모여 있는 아태 지역의 여성들이 가장 힘들게 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 여성들에게 도움의 종자돈(Seed Money)을 나눠주는 2009년도 프로젝트(Project Women 2009)도 실행된다.

한편 한국가톨릭여성협의회는 지난 4월 전국총회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각 교구별로 생명수호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한편 오는 12월 생명주간에는 10개 교구가 함께 모여 난자매매 반대, 낙태반대, 배아줄기세포 연구 반대와 함께 혼혈 및 장기기증 운동을 전개하

## 좋은영화보기

‘좋은영화보기’는 영화탄생 100주년을 맞아 바티칸에서 선정한 위대한 영화 45편을 중심으로 미국 주교회의에서 1965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는 좋은 영화 목록을 더해 작년부터 서울평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복음화 사업입니다. 이번 호에 소개하는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지난 8월에 상영된 영화입니다.

### 와이키키 브라더스



감독 : 임 순례

(와이키키 브라더스, 우리들의 행복한 순간,  
6가지 시선 등)

주연 : 이 얼, 황 정민, 박 원상, 오 지혜

고교시절 미래의 뮤지션을 꿈꾸며 상우, 민수, 수철, 인기는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밴드를 결성하여 연주활동을 하였다. 세월이 지나 민수는 약사, 수철은 시청 공무원, 인기는 환경운동가가 되었고 상우는 와이키키 브라더스 밴드를 힘겹게 유지하며 중, 소도시의 업소를 전전하며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와이키키 브라더스 밴드의 구성원이 하나 둘 빠져나가고 우연히 자신의 고향 충주의 야간업소에서 연주를 하게 되어 만나게 된 고교시절의 밴드 친구들, 약사가 된 민수, 시청공무원이 된 수철, 환경운동가 활동을 하고 있는 인기 모두 과거의 추억만 있을 뿐 현실의 삶과 타협하는 또 다른 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주교 신자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는 나름대로 하느님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갈 것을 다짐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 주변에 널려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다짐을 스스로 허물며 나약한 모습의 초라한 인간으로 되돌려 놓고 있다. 이런저런 유혹에 흔들림 없이 와이키키 브라더스 밴드를 끝까지 지키며 연주활동을 하는 상우처럼 초심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고, 생명의 존엄에 관한 중장기 교육과 미혼모 보호시설 확충을 위한 생명기금 마련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 한국 지속적인 성체조배 봉사자협의회

### 전국 하계수련회

한국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봉사자협의회(회장 김명관)는 지난 8월 19일(화)부터 2박 3일에 걸쳐 전국 하계수련회를 개최하였다. 김덕근 대표담당사제와 부산교구 주영돈 담당사제를 비롯하여 각 교구 회장단 44명이 참석하였다.

오창열 신부의 강의를 시작으로 결산보고와 각 교구 활동보고가 있었고, 성지순례(김범우 묘지참배, 언양성당 신앙유물전시관, 오륜대 한국순교자기념관 등)가 있었다.

### 동 정

## 한홍순 회장 녹조근정훈장 받아

한홍순(韓弘淳)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은 지난 8월 31일 이명박 대통령이 수여하는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한 회장은 지난 36년 동안 한국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민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훈장을 받았다. 한회장은 이 날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정년 퇴임하고 9월 1일 동 대학교 경제학부 명예 교수로 임명되었다.

### 교황청 소식

#### 빈곤에 관한 교황청 문헌 발간 예정

교황청 평신도 평의회 의장 레나토 마르티노 추기경은 최근 교황청이 세계화 시대의 빈곤 문제를 분석한 문헌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르티노 추기경은 이 평의회가 지난 8월 말 탄자니아의 다르-에소-살람에서 주최한 복음화 회의에서 이 소식을 발표했다.

마르티노 추기경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은 교회의 사회교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라고 말했다. “빈곤, 그리고 지역간, 대륙간, 국가간 불평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은 오늘의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극적인 문제”라고 덧붙여 밝혔다. 마르티노 추기경은 새 문헌은 교회의 사회교리에 비추어 빈곤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르티노 추기경은 이 문헌의 목적은 “빈곤 퇴치의 복음적 접근 방법을 지적하고 국내외적으로 빈곤 퇴치에 책임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 밝히고 세계의 빈곤과 빈민들의 문제에 대한 교회의 의식을 더욱 일깨우는 데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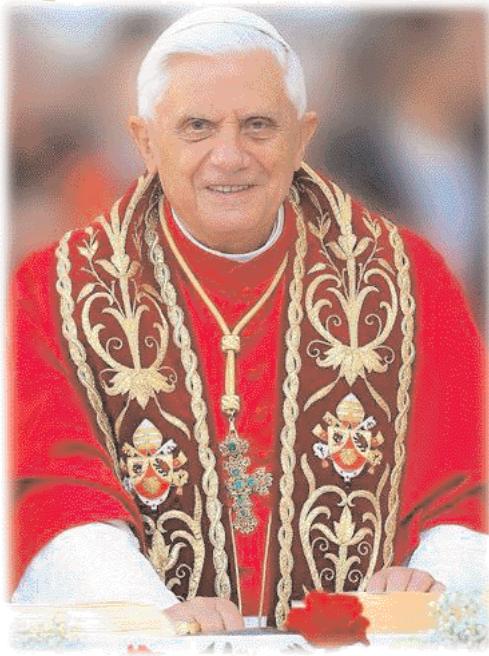
마르티노 추기경은 복음화의 활력은 교회로 하여금 가난한 이들에게 특권을 주고, 우리 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리며 가난한 이들의 필요에 맞춰 사회 개혁을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계화에 대해 추기경은 “없어서는 안 될 애덕 행위는 이웃이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사회

## <교황님의 가르침>

다음은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2008년 8월 31일 카스텔 간돌포의 교황궁에서 하신 삼종기도 훈화말씀이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베드로 사도가 복음서의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메시아요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선포하며 보여준 그 분께 대한 베드로의 올곧은 신앙에 감동하였습니다만, 이 번에 곧 바로 그 뒤를 이은 장면은 아직 설익고 너무나 “현세의 사고 방식”(로마 12, 2 참조)에 매여 있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에 대해서, 즉 고난을 많이 당하시고 죽임을 당한 다음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놓고 말씀하기 시작하시자, 베드로는 이의를 제기하며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마태 16, 22) 스승과 제자가 두 가지 상반되는 사고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논리에 따라 하느님께서는 결코 당신 아드님이 자신의 사명을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써 마치도록 내버려두시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반대로 아버지께서 인간을 무한히 사랑하시어 자신을 보내 이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도록 하셨다는 것, 그리고 만일 이것이 수난과 십자가를 뜻한다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한편, 그 분께서는 결정적인 말은 부활이라는 것 또한 알고 계십니다. 비록 베드로가 스승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스승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조를 조직하려는 결연한 의지”라고 지적했다.(2008년 9월 2일 외진종합)

당신의 생명을 잃어버림으로써만 우리 모두를 위해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  
인데도 당신 자신을 살리라는 유혹과 권고로 들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셔야 했다면, 그것은 정녕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가혹한 계획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낫게 해 주시려고 오신 심상치 않은 병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심각하고 치명적인 병이어서 그분의 피가 통째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써 죄와 죽음을 이기고 하느님의 지배권을 다시 확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악은 모든 세대에, 오늘 우리 시대에도 남아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폭력, 약한 사람들을 덮치는 비참과 불의는 악이 하느님 나라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증오를 이기는 사랑의 무장하지 않은 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의 그러한 힘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토록 많은 악의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 편의 많은 이들에게 오해 받고 버림 받으면서까지 바로 이 신비스런 힘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 사업을 충실히 완수하기 위해 구세주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떠를 뜻이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당신과 당신의 사명에 합류시키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님께 그려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사랑으로 받아 들여야 할 사명입니다.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힘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대 세계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권고하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라고 말입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 가신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님께 도움을 간청합시다. 우리가 결연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도록, 지금부터, 시련 중에도, 부활의 영광을 맛 보도록 성모님께서 도와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 2008년도 (제25회) 가톨릭대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숨어있는 가톨릭대상의 주인공을 찾아주십시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2008년도 가톨릭대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한국평협은 세상속에서 삶고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묵히 실천해온 숨은 인사를 찾아 ▲사랑 ▲정의평화 ▲문화 부문으로 나뉘어 가톨릭대상을 시상해오고 있습니다.

1982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시상하고 있는 가톨릭대상은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복음적 활동으로 현세질서에 이바지한 모범적 시민에게 시상함으로써 인간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며, ‘작은그리스도’, ‘숨은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데에 뜻이 있습니다.

가톨릭대상은 가톨릭신자에 국한하지 않고 종교와 종파를 초월하여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숨어있는 작은 그리스도를 찾아 우리 삶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실천과 정의 평화 실현, 문화창달에 노력해온 평신도와 일반 시민들 중에서 널리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랑 · 정의평화 · 문화 3개 부문
- 대상 :종파를 초월한 55세 이상으로 개인 및 단체(사도직 단체 제외)
- 추천방식 :소정의 추천양식 또는 일반적인 추천양식
- 마감 :2008년 10월 31일
- 시상일 :2008년 12월중
- 상금 :사랑 · 정의평화 · 문화 각 부문 대상 300만원
- 접수 :(00-809) 서울시 중구 명동2가 1가톨릭회관 510호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02-777-2013, 757-7851 FAX) 02-778-7427

홈페이지 : [www.clak.or.kr](http://www.clak.or.kr) / 이메일 : clak@catholic.or.kr